www.kicj.re.kr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SINCE 1989

2023 **Vol. 10**

KICJ ISSUE PAPER

사법개혁과제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

탁희성 선임연구위원 | 법학박사, kinderei@kicj.re.kr

발행일 2023년 09월 30일 **발행인** 하태훈 **발행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주요키워드

사법개혁,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 양성시스템, 법률서비스, 변호사시험

* 관련보고서: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16) – 사법개혁과제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연구

연구원의 허락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요약

-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구현의 시발점으로서 법조인 양성시스템이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으로 전환됨.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법조직역에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진출하고 있으며, 특별전형제도, 지역균형 인재선발제도, 취약계층에 대한 100%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 법조직역에의 접근성을 확대해오고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배출로 우리사회 변호사 인력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지방변호사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고 하는 본래 취지와 달리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대로 낮아짐으로써 과거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로 회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인한 법조문화의 변화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지 않음. 이는 일반국민들 인식속에 법조인은 특권계층이라는 인식이 여전하고, 변호사 시험을 예전 사법시험과 같이 신분상승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음.
- 변호사시험은 법조인력 충원을 위한 선발시험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전원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스스로가 전문직업인으로서 법률가를 양성해야 하는 직업훈련기관으로서 정체성을 내재할 필요가 있음.

01 |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논의의 배경

- 지난 60년 이상 사법시험을 통해 형성된 독점적·비경쟁적 법조구조로 인해 일반국민들의 법률서비스에의 접근성이 현저히 제약을 받아왔음.
-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구현의 시발점으로서 법조인 양성구조의 근본적 개혁 필요성이 제기됨.
- 법조인 양성시스템의 기본 패러다임을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전원제도 도입이 지속적으로 논의됨.

연구 목적

- 법전원제도 도입의 가장 큰 단초를 제공했던 법조개혁의 취지 달성 정도 평가
- 국제적 사법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법조인 양성에의 기여 정도 평가
-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사람들의 법조직역에의 접근가능성 확대 정도 평가
- 사법의 수요자인 일반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의 용이성 정도 평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운영 현황

-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 양성**
  - 2009년 법전원 입학이 시작된 이래로 현재까지 법학전공생 비율은 40%에서 8.17%로 감소했으며,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가운데 법학전공자 비율도 50%대에서 20%로 감소하였음. 즉 과거 법학전공자에 치중되었던 법조직역에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진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법조직역에의 접근성 확대**
  - 특별전형제도와 지역균형 인재선발제도, 취약계층에 대한 100% 장학금 지급을 통해 법전원제도 도입 10년 동안 적어도 500명 이상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변호사들이 배출되었음.

- **교육을 통한 전문법조인 양성**
  -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 목표하에 법전원 도입시 법전원별 특성화분야를 설정하고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특성화과목 수강율이 10% 미만인 법전원이 68%에 이르고 있음. 사실상 각 법전원별 특성화교육은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음.
  -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고 하는 법전원제도 도입취지와 달리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매년 낮아져서 제도 초기 80%를 상회하던 합격률이 50%대로 낮아졌음. 이러한 낮은 합격률은 법전원을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아닌 선발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으로 왜곡시키고 있음.

-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완화**
  - 법전원제도 도입으로 우리사회 변호사 인력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지방 변호사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법개혁과제로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성과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 **법조직역에의 접근성 확대**
  - 일반국민들의 경우 과거 소수 엘리트에 한해 기회와 가능성이 주어졌던 사법시험과 비교해 볼 때, 법전원제도로 인해 훨씬 다양한 사람들이 법조직역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법전원생과 법전원 출신 변호사들 역시 법전원제도가 법조직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을 통한 전문법조인 양성**
  - 법전원생과 법전원 출신 변호사 모두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과 “다양한 전문분야의 법조인”양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인식이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법률서비스의 양적·질적 변화**
  - 법률서비스의 양적 변화에 대해서는 일반국민과 법전원 출신 변호사 모두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해 법률서비스 시장이 확대되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법률서비스 접근 용이성을 판단하는 현실적 기준이 되는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인식은 일반국민들과 변호사간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법조문화의 변화에의 기여**
  - 법전원제도가 법조직역의 특권계층 형성을 막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일반국민들의 경우 35.9%, 법전원생과 변호사의 경우에는 각각 49.6%와 57.2%가 그렇다고 하는 긍정적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남.

- 법전원제도 도입 당시 사법개혁의 직접적 단초를 제공한 전관예우 관행의 변화에 대해서는 법전원생의 경우 부정적 응답비율이 37.7%로 긍정적 응답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한편 일반국민들의 경우에는 긍정적 응답이 32.7%로 부정적 응답비율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법전원출신 변호사의 경우에는 48.2%가 긍정적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남.

- 법조직역의 수직적, 배타적 문화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던 관료주의, 서열주의, 학벌주의 변화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법전원생의 경우 53.1%가 부정적 응답을 한 반면, 법전원 출신 변호사는 49.4%가 긍정적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일반국민들의 경우 부정적 응답이 33.1%로 긍정적 응답비율 보다 높게 나타남.

03 | 정책제언

사법개혁의 프레임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 법전원제도는 우리사회의 전근대적 사법을 개혁함으로써 사법의 이용자인 일반국민들이 공감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는 전제사실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갖고 있어야 함.
- 법조인을 특권계층으로 양성해왔던 과거의 사법시험의 그늘에서 벗어나 온전히 교육을 통해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부합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 배출제도로서 법전원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함.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고 하는 법조인 양성시스템 패러다임 전환의 정착

- 변호사시험은 법조인력 충원을 위한 선발시험이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수요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전원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전환되어야 함.

법학전문대학원 정체성 재고

- 법전원 스스로 교육을 통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법률가를 양성해야 하는 직업훈련기관으로서 정체성을 내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